



김 정 태

이 낱말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다. 성폭행 문제가 야기되기 훨씬 전부터 있어온 청소년의 성문제가운데 큰 문제인것이다. 이는 특히 청소년의 성문제를 다룰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토록 문제삼아 왔음에도 별로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뚜렷히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 수는 증가할 뿐아니라 대상여성들의 연령은 점점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미혼모를 무엇이라 정의하느냐에는 문제가 따른다. 미혼모란 엄격히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분만한 상태를 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는 전체 여성인구에 비해 그리 많은 수라고 볼 수는 없다.

일전의 어느 매스컴에서 다루었던 경우에서도 불과 몇천명대에 이를 뿐이었으니깐.

미혼여성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도 그때마다 반드시 임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임신을 성립시키는 정자나 난자의 생존기간이 평균보다 길다는 사실때문에 성접촉으로 임신이 되는 빈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런 현상을 임신력(力)이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기는하나 그렇다고 접촉의 1백%가 모두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가진 경우의 불과 몇%에서 임신이 되고 있고 또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인공중절로 그 임신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미혼모란 정의는 이들을 포함하여 넓은 뜻에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 다만 결과가 표면상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하여 임신이 분만으로까지 이르는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설혹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전의 성관계란 항상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므로 이는 한층 더 나아가 무방비상태로 마구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성양상 전반에 문제시되어야 마땅하다.

미 혼 모

미혼모는 모(母)와 자(子)가 문제가 되고, 자(子)는 사회에 버려지는 아이일 수 밖에 없다는 일은 아닌게아니라 사회의 큰 문제거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경우 성행위시 피임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행위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성이 없으므로 피임기구를 미리 준비한다는 일은 흔하지 않다. 또 사회는 엄연히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피임방법을 정식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피임만 제대로 한다면 청소년들이 제한없이 마구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우리가 문제를 삼는것은 항상 가시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에서만 시행되어 왔다. 하긴 우리 사회는 흔히 모든면에서 결과만 중요시 여겨온 점에서도 수궁이 간다.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에 중량을 두지 않고 한번의 육체관계에 더 무게를 두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인간의 근본을 솔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할 것 같고 청소년들의 성문제도 겉치레가 아닌 근본적인 인간상이 바탕이 되는데서부터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하다. 현재 청소년들은 악수나 한번 하였다는듯 성관계를 서슴치않고 있고 그런 교제가 없으면 남에게 뒤떨어진다고까지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의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미혼모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 뻔하다. 비참하게 아이를 낳아 떼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가련한 미혼모를 등장시켜 경위를 묻고 심정을 묻는 일들은 지나치게 가혹한 얘기일 수 밖에 없다. 아니고 어쩌면 미혼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인상 까지도 있다. 왜 젊은이들이 무절제하게 행위를 해가고 있는지, 그럴 때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본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피상적인 현상만을 형식적으로 다루다면 임신중절이나 미혼모는 증가일로일

92. 5. 23